

## 건설업 보건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낮은 선임기준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일로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금액 50억 원부터 1조 원 이

상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1명 이상부터 11명 이상까지 차등 설정하고 있다. 반면 보건관리자는 800억 원 이상 공사일 경우 1명 이상, 공사금액이 1,400억 원 증가할 때마다 보건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안전관리자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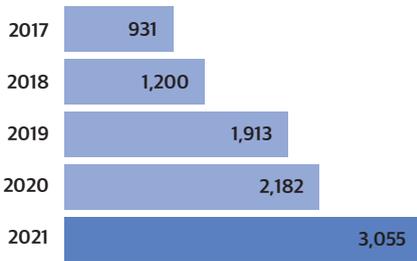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1,500억 원 미만 : 2명 이상	공사금액 1,400억 원 증가마다 : 1명 추가
공사금액 1,500억 원 이상~2,200억 원 미만 :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 원 이상~3,000억 원 미만 : 4명 이상	
공사금액 3,000억 원 이상~3,900억 원 미만 :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 원 이상~4,900억 원 미만 :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 원 이상~6,000억 원 미만 : 7명 이상	
공사금액 6,000억 원 이상~7,200억 원 미만 :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 원 이상~8,500억 원 미만 : 9명 이상	
공사금액 8,500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 10명 이상	
공사금액 1조 원 이상 : 11명 이상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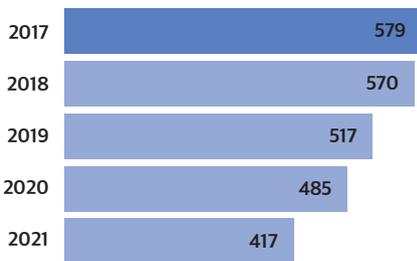
## 건설업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노력으로 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 재해는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 노동자 수는 2017년 579명, 2018년 570명, 2019년 517명, 2020년 485명, 2021년 417명으로 꾸준히 줄어든 반면, 건설업 업무상질병 재해 노동자 수는 2017년 931명, 2018년 1,200명, 2019년 1,913명, 2020년 2,182명, 2021년 3,05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광업과 제조업은 상시노동자 수가 많은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재해 노동자 수가 많이 발생하지만, 건설업은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장의 보건관리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건설업 업무상질병 재해 노동자 수 (단위: 명)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 노동자 수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 건설업 업무상질병 노출 유해인자

2020년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건설업 직종별 노출 유해인자를 조사한 바 있다(「건설업 직종별 노출 유해인자, 노출량, 노출분율에 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18종), 물리적 인자(5종), 생물학적 인자, 근골격계질환 유발인자로 2009~2018년 건설업에서 업무상질병 발생은 총 7,902건이 있었다.

<b>화학적 인자</b> (18종)	석면, 시멘트/콘크리트분진, 실리카, 금속흄, 6가크롬, 납, 에폭시/우레탄, 이소시아네이트, 유기용제류, 일산화탄소, 목분진, 목재방부제, 디젤엔진배출물, 아스팔트흄 *조사자 추가물질: 기타 광물성 분진, 유리섬유, 금속류, 석고
<b>물리적 인자</b> (5종)	소음, 진동, 유해광선, 이상기압, 폭염/한랭
<b>생물학적 인자</b> (1종)	미생물
<b>근골격계질환</b> (2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출처: 안전보건공단>

이 중 직업관련성 질병이 6,648건(84%), 진폐 644건(8%), 직업병(진폐제외) 610건(8%)이 발생하였다. 직업병(진폐제외) 610건 중에서는 소음성 난청 145건(24%), 세균바이러스 124건(20%), 직업성 암 77건(13%),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75건(12%), 석면 57건(9%), 이상 기압 42건(7%) 등의 순이었다. 🍷